

# 이혼 가정의 아동과 어머니의 사회적응을 위한 통합적 집단치료의 효과성 연구\*

## The Effects of an Integrated Group Therapy Program on the Social Adjustment of Divorced Families\*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정문자  
박사과정 김진이  
박사과정 이현주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

*Professor* : Chung, Moon Ja

*Doctoral Candidate* : Kim, Jiny

*Doctoral Candidate* : Lee, Hyunju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Comprehensive Group Therapy Program developed for children and mothers of divorced families. The research questions were to determine first, any differences between program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in the areas of life wellbeing, attitude towards divorce,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skills as a result of this program; and second the durability of these effects three months after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1 children and 14 mothers of the divorced families. Among them, 18 children and 6 mothers, including 5 mother-child dyads were assigned to experimental group, while 23 children and 8 mothers, including 8 mother-child dyads, to control group. Both groups received pre-and

Corresponding Author: Moon Ja Chung,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udaemon-ku, Seoul 120-749, Korea Tel: 82-2-2123-3149

E-mail: mjchung@yonsei.ac.kr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41-C00390).

post-test evaluation but experimental group additionally received a follow-up test.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Mann-Whitney U Test,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 and qualitative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apy program enhanced the life wellbeing of both child and mother participants significantly, and this effect lasted for at least for three months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program. Second, though the effect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hild and mother participants' attitude towards divorce,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skills between mother and child changed positively after the program and these effects lasted for over three months.

**주제어(Key Words):** 이혼한 가정의 아동과 어머니(children and mother of divorced families), 통합적 집단치료 프로그램(comprehensive group therapy program)

## 1. 서론

현대 산업화와 도시화 이후 경제적, 사회적 변화는 가족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족 해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혼사례가 많은 서구에서는 이혼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혼과 관련된 연구들이 포괄적으로 수행되어왔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정책수립에도 활용되고 있다.

초기 이혼연구에서는 이혼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였으며 이혼을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위기(Hetherington, 1989)로 보아 이혼 가족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문제에 관해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예를 들어, 이혼한 사람들은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삶의 질(well-being)이 낮으며(Davies, Avison & McAlpine, 1997),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거나 비정상적인 사람 혹은 결점이 많은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실패감은 이혼자의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다(Albrecht, 1980). 그 외 이혼자들은 분노와 상실감, 자기비난, 후회감, 죄의식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과 훈육의 문제, 성문제 및 대인관계의 문제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정현, 1998). 이혼은 이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과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사건으로, 성공적인 양육이나 유능한 자녀로 자라나게 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오는 위기요인을 증가시킴으로(Hetherington, 1999) 이혼 가정의 아동이 일반 가정의 아동보다 행동, 정서, 건강, 학업적인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Amato & Keith, 1991). 이혼 가정의 아동은 부모의 이혼에 대한 죄책감, 두려움, 불안감을 나타냈으며(Mindey 1989), 분노, 공격성, 비행 등 정서적·행동적 문제와 친밀한 인간관계를 피하는 등 대인관계에서도 문제를 보였다(Kelly, 1988).

이혼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이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혼을 결혼해체라는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가족변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혼적응에 관한 종단적인 연구들이 이전 연구와는 다른 연구결과를 보고하면서 이혼 가정의 레질리언스(resilience)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Amato(1994)에 의하면 이혼 가정 아동의 대다수가 평균범위에 속하는 적응점수를 보였으며, 이들의 적응이나 성취정도를 보면 이전 연구에서 나타난 것 보다 비이혼 가정의 아동과 비교할 때 차이가 적다고 하였다. 부모의 이혼에 따른 초기의 혼란된 시기가 지나가면 아동은 적절히 기능하거나 심지어 더 잘 기능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Amato & Keith, 1991)도 있다. Kelly(2000)는 최근 10년간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아동에게 이혼의 장기적인 결과가 역기능적이기보다는 레질리언스를 갖고 있다는 견해를 지지하였다. 이혼을 가족이 적응해야 할 과정으로 보는 견해와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면서 이혼 후 생활의 적응의 문제에 관한 연구들과 이혼 가족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혼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연구들이 미국을 위시하여 서구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부모들에게 아동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적극적인 태도와 필수적인 공동양육 기술을 제공하며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부모에게 직접 가르치는 교육적 접근을 사용하고 있다(Zibbell, 1992). 이혼 가정 아동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학교가 이들의 아동 각각에 맞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치료보다는 집단치료를 가장 흔히 사용하고(Grych & Fincham, 1992) 있으며 집단형태의 가장 중요한 이점은 비숙련 경험을 가진 또래 아동들과 함께 연결된다는 점(Stoberg & Cullen, 1983)을 꼽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근 이혼이 증가하여 이혼 가정의 심리·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이혼연구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며 더욱이 이혼 가족의 중재 방안은 소수에 불과하다. 기존의 프로그램들(김득성, 2002; 문현숙·김득성, 2003; 김정현, 2002; 오은순, 2001; 주소희, 2002)은 서구의 이혼 적응 프로그램들을 기초로 하여 이론적인 기반이 서구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문화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이혼 후 공동양육자로 부모의 역할을 공유하게 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자체를 자녀에게 공공연한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 프로그램에서 부모의 이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리며 이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동들에게도 충격과 배신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프로그램은 이혼 가정의 부모나 자녀 중 어느 한 대상만을 참여시켰는데 이혼 가정의 아동의 프로그램에 부모 프로그램을 병행할 것이 제안(주소희, 2002)되고 있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어떤 치료효과가 나타날지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고 가족 레질리언스 접근을 기초로 하여 사타어의 경험적 가족치료와 해결중심치료 그리고 치료적 효과가 있는 다양한 게임과 활동을 사용하여 이혼 가정의 아동과 어머니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개발된 통합적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 프로그램이 이들의 삶의 질, 이혼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통합적 집단치료에 참여한 이혼 가정 아동과 참여하지 않은 이혼 가정 아동간에 삶의 질, 이혼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서 차이가 있는가?
2. 통합적 집단치료로 인한 이혼 가정 아동의 변화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계속 유지되는가?
3. 통합적 집단치료에 참여한 이혼한 어머니와 참여하지 않은 이혼한 어머니 간에 삶의 질, 이혼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서 차이가 있는가?
4. 통합적 집단치료로 인한 이혼한 어머니의 변화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계속 유지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이혼 가정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적응

이혼한 사람들은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삶의 질(Demo & Acock, 1996)이 낮고 심리적인 고통(Lorenz et al., 1997)을 경험하며 건강 문제와 사망의 위험도 높다고(Hernstrom, 1996) 보고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이혼 후 사회적으로 고립되고(Ross, 1995)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며(Teachman & Paasch, 1994) 자녀양육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Thomson et al., 1992). 비록 가족해체가 이러한 위험을 증가시키지만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보고도 있다. Marks(1996)에 의하면 이혼자들이 결혼을 유지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개인적인 성숙을 경험하며 Acock과 Demo (1994)는 많은 이혼모들이 직업의 기회나 사교적인 생활에서 행복하다고 보고하였다. Riessmann(1990)의 질적 연구에서 이혼여성들이 이혼 후 더 자신감이 많아지고 조절력이 생겼으며, 이혼남성들의 경우 대인관계 기술이 늘고 자기노출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혼 가정의 아동들은 이혼하지 않은 가정의 아동과 비교할 때 더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며 반사회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였고 부모, 또래, 권위적인 대상과 관계를 맺는데도 문제가 더 많았다(Kelly, 2000). 아동기에 부모가 이혼한 초기 성인들은 그렇지 않은 성인들에 비해 혼외 임신이 더 많았으며, 결혼을 빨리했고,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도 낮았다(McLanahan & Sandefur, 1994).

그러나 Amato와 Keith(1991)는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비이혼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비록 적응상의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 차이는 매우 적으며 이들 대부분이 정상적인 발달을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McLanahan와 Sandefur(1994)에 의하면 이혼 가정의 아동이 비이혼 가정의 아동에 비해 학업수행과 성취도 점수가 낮았으나 사회경제적 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할 경우 그 차이는 줄어들었다. Chase-Lansdale과 동료들(1995)은 아동기에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33세가 되면 이혼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Hetherington과 Kelly(2002)는 이혼이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전이기이지만 이전이기를 어떻게 잘 대처하는가는 스트레스 대처 능력 및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위험요인과 역경을 완화하도록 돕는 보호요인 사이의 균형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한 두 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하나는 부모 특히 어머니들이 결혼의 실패로 인한 정서적, 재정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지지와 민감성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레질리언스로 이혼을 숙명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이혼 후의 새로운 경험, 관계의 형성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로 삼는 것이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이혼 가족이 건강하게 사회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원들의 위험요인들을 감소시키고 보호요인들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 2. 국내 이혼 가족 집단프로그램

국내의 이혼 가족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혼 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은 부모의 이혼 후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심리, 정서적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이혼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이혼에 대한 이해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발, 실시되었다.

서구의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이혼 가정 아동을 위한 학교중심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한 오은순(2001)은 이 프로그램을 총 8회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부모의 이혼과 자기비난, 부모의 이혼에 따른 감정변화, 분노와 부모비난, 분노에 대한 대처방안, 부모의 이혼 후 문제 대처하기를 다루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행동, 불안수준, 이혼에 대한 태도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주소희(2002)는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들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변화와 부모 이혼 후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 정서적 갈등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총 8회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한 결과 아동의 행동발달과 불안수준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과 이혼에 대한 태도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혼당사자가 자신들의 감정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이 방임, 학대받는 상황에 노출됨으로 부모상담이나 부모교육이 함께 병행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혼 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프로그램의 예로 김득성(2002)은 이혼 부모들의 자기이해와 자녀이해를 증진시켜 부모-자녀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3시간 단기과정 이혼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Burns와 Whiteman(1998)의 슬픔의 과정 모델을 이론적 토대로 하였으며 이혼을 이해하고 부모-자녀간 효과적인 대화기술을 학습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자존감과 이혼대처능력을 검사한 결과 자존감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혼대처능력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문현숙과 김득성(2003)은 Burns와 Whiteman(1998)의 슬픔의 과정 모델과 Bohannan(1970)의 이혼과정의 6단계 모델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부모의 이혼에 대한 자녀의 반응과 대처전략, 부모자녀간의 의사

소통 기법 및 이혼 후 스트레스 관리 등의 내용으로 이틀간 총 8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자존감과 이혼대처 능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성정현(2002)은 이혼하거나 별거중인 14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총 6회의 집단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이혼 후의 모호하고 불안했던 문제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집단구성원들의 지지를 경험함으로써 집단프로그램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혼적응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서구의 프로그램들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이론적인 배경이 서구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체면이나 수치와 같은 한국 사회문화의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프로그램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족의 레질리언스 강화를 돕는 내용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이혼 가정의 부모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주소희(2002)가 제안한 것처럼 이혼 가정의 아동과 어머니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치료효과의 증대가 있을지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 3. 이혼 가족의 사회적응을 돕는 통합적 집단치료

이혼 가족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가족의 역경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강해지고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Higgins, 1994) 가족 레질리언스 관점하에 개인의 강점과 자원에 초점을 둔 사티어의 성장모델과 해결중심 접근에 기초하여 통합적 집단치료가 개발되었다.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조가 존재하고 있는데 역기능적 가족구조로 분류된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응을 잘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가족 레질리언스 접근은 위기 상황에서 고통을 받은 취약한 가족이라도 성공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가족의 자긍심과 효능감을 증가시키고 계속되는 삶의 어려움속에서 잘 적응하도록 한다. 이 접근에 의하면 모든 가족은

생존과 성장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강점 지향적인 관점으로 중재한다. 레질리언스와 관련된 개인특성으로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들 수 있는데 Rutter(1985)는 강한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은 성공적 대처를 가능하게 하지만 무력감은 역경을 제 2의 역경으로 인도할 가능성을 증대시킨다고 하였다. 다양한 가족치료의 접근 중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와 해결중심치료는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티어는 자신이 개발한 성장모델에서 모든 사람은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내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변화가 비록 제한적일지라도 내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모델에서는 내담자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자기인생에 대한 선택권을 스스로 갖도록 하며, 가족의 규칙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들며 내담자의 의사소통 유형을 일치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정문자, 2003). 이 접근은 자신이 문제로 여겼던 과거의 사건이나 기억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게 도와 현재 당면한 문제를 잘 극복하게 만든다. 이 모델은 우리 문화에서 이혼 가정을 중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수치와 체면이 중요한 한국문화에서 이혼은 수치스럽고 감추어야 할 주제이며 이혼과 관련된 감정이나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다양한 치료적 활동을 통하여 이혼과 관련된 감정과 이슈들을 다루며 자신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해결중심치료는 내담자가 이미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치료자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내담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해결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바가 별로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해결중심 접근에서는 치료목표를 가능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세워 문제해결의 시작을 도우며 이미 내담자가 잘 하고 있는 것을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도우며

로 목표성취가 용이하게 한다(DeJong, & Berg, 1998). 내담자는 변화에 대한 적극성, 목표의식,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 성취감과 유능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레질리언스를 가진 아동의 특성들로 보고(Garmezy, 1993; Werner, 1993) 된바 있으며 이러한 레질리언스는 이혼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내고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다(Hetherington, 1999).

이상의 이론들을 토대로 하여 통합적 집단치료는 이혼 가정 아동과 어머니가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움으로써 사회적응의 보호요인인 자존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개인의 레질리언스를 강화하여 위협요인인 우울, 불안, 분노를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돕고자 한다.

#### 4.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법

이혼 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해 본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법이 적용되었다.

가족 레질리언스 접근방법으로 치료자와 동료들의 지지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참여자들이 레질리언스의 주요한 개인특성인 자존감을 향상하고 의사소통과정에서 개방적인 정서표현을 증가하도록 도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혼가정 아동과 어머니가 자신의 생활과 자기 자신을 더 활기차게 느끼게 되고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에서는 내면의 감정, 의사소통 내용의 일치, 및 자아존중감을 중요시하였다. 매회기 도입부분인 '생각과 느낌 나누기' 활동에서 참여 어머니들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감사와 근심, 불평과 해결방안, 희망과 소망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동들은 '변화에 대한 질문'을 통해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므로써 다양한 내면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4회기에는 참여 아동과 어머니 모두가 긍정적, 부정적 의사소통의 효과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기술을 익히도록 하였다.

아동과 어머니 프로그램 1회기의 '별칭짓기'와 '클로버'는 개별화와 재구성 그리고 긍정적 자원의 확인을 통해 자선감과 자기 가치감을 증진하게 하였고 6회기의 '해결의 마법의자'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과정을 촉진하였다. 아동 프로그램에서 3회기의 '거북이 이야기'는 이혼 가족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지각과 해석 및 신념에 도전하도록 도왔다. 어머니 프로그램에서 '희망의 나라'는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있게 여기는 것을 활동을 통해 생각하게 함으로써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희망과 자긍심을 가지게 하였다.

해결중심치료는 내담자의 강점, 자원을 발견하여 치료에 활용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목표로 삼고 긍정적인 변화에 관해 질문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변화를 인식하여 자존감과 자신감을 증진시키도록 하였다. 아동과 어머니 프로그램에서 첫 회기에 '클로버'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이 끝난 후 변화하고 싶은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해결중심치료의 주요 질문기법 중 척도질문을 사용하여 변화를 측정하게 하였는데 1회기에는 현재의 상태와 목표점수를, 3회기에는 3주간의 변화에 대한 진전 상태를, 6회기에는 목표의 성취정도를 질문하였다. 아동프로그램의 6회기에 '칭찬모자쓰기'는 변화를 확인하고 강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변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왔고 매 회기 후반부에 메시지를 통하여 참여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과제를 주어 지속적인 변화 동기를 부여하였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방법을 사용하였다. 이혼 가정의 아동과 어머니를 위한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개월 후에 실험집단에게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두 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다섯 개 초등학교를 통해 선정된 이혼 가정의 아동 41명과 어머니 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집단은 두 복지관의 아동 18명과 어머니 6명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들 중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참여한 가족은 5쌍이었다. 통제집단은 실험대상을 선정한 종합사회복지관에 인접한 지역에 있는 다섯 개의 초등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이혼 가정의 아동 31명과 어머니 16명을 선정한 후 이 중에서 아동 23명과 어머니 8명으로 최종 구성하였다. 이들 중 어머니와 자녀로 함께 대상이 된 가족은 8쌍이었다. 통제집단 아동의 선정은 실험집단 아동과 유사하도록 학년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어머니의 선정 또한 실험집단 어머니와 유사하도록 학력과 경제적 면을 일차적으로 고려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아동의 특성은 <표 1>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어머니의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처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아동은 학년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서는 비교적 유

사하였으나 아동의 성에서 실험집단은 여아(67%)가, 통제집단은 남아(65%)가 많았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월수입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258만원)에 못 미친 150만원 미만이었다(통계청, 2003). 이혼 기간은 실험집단 어머니의 경우 평균 4년 7개월(범위: 1년 10개월~9년 9개월)이었고, 통제집단은 평균 2년 7개월(범위: 1년 8개월~4년)이었다.

<표 1>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 아동의 인구학적 배경 (N=41)

구 분	실험집단(n=18)	통제집단(n=23)
	아동수(%)	아동수(%)
남	6(33.3)	15(65.2)
여	12(66.7)	8(34.8)
저 학년	7(38.9)	5(21.7)
고 학년	11(61.1)	18(78.3)
수급 대상 자녀 <sup>1)</sup>	12(66.7)	14(60.9)
비 수급 대상 자녀	6(33.3)	9(39.1)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표 2>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 어머니의 인구학적 배경

(N=14)

집 단 별	양육자	학 력	직 업	근무상태	월 수 입	이혼 기간
실험집단 (n=6)	모	중 졸	노무/생산, 기술직	시간제	50만원 미만	5년
	모	고 졸	사무직	종일제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3년 2개월
	모	고 졸	기타	종일제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년 10개월
	모	고 졸	판매 및서비스직	종일제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9년 7개월
	모	고 졸	기타	무응답	50만원 미만	6년
	모	고 졸	노무/생산, 기술직	종일제	50만원 미만	3년 2개월
통제집단 (n=8)	모	대 졸	판매 및 서비스직	시간제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무응답
	모	중 졸	노무/생산, 기술직	종일제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무응답
	모	고 졸	노무/생산, 기술직	종일제	50만원 미만	1년 8개월
	모	초대졸/ 대학중퇴	판매 및 서비스직	종일제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4년
	모	중 졸	무응답	시간제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3년 5개월
	모	중 졸	노무/생산, 기술직	종일제	50만원 미만	1년 6개월
	모	고 졸	사무직	종일제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년 2개월
	모	중 졸	노무/생산, 기술직	종일제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4년

3. 프로그램 내용 및 실시

본 프로그램은 2004년 3월에서 5월 사이 서울 소재 S복지관과 Y복지관에서 주 1회 2시간씩 총 6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S복지관은 2004년 3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Y복지관은 2004년 4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되었다. S복지관은 아동 10명과 어머니 4명이, Y복지관은 아동 8명과 어머니 2명이 참여하였다. 각 복지관에서 아동은 학년에 따라 저학년과 고학년의 두 개 집단으로 나누고, 어머니는 한 개의 집단으로 구성하여 총 6개의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표 3). 각 집단에는 가족치료

에 대한 전문훈련을 받은 치료자 1명과 상담전공의 보조치료자 1명이 배치되었다.

프로그램의 목표 및 내용을 아동용과 어머니용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표 5).

〈표 3〉 실험집단의 구성 (N=24)

복지관명	학 년	아 동 수	어머니수
S	저학년	3	4
	고학년	7	
Y	저학년	4	2
	고학년	4	

〈표 4〉 아동용 프로그램

단 계	회	목 표	활 동 명	목표 및 내용	과 제
집단 형성 단계	1	· 프로그램 소개 · 자기소개 · 집단원간의 관계형성	[과일바구니] [별칭짓기] [클로버] [척도그래프]	· 신체활동을 통해 집단구성원간의 친밀감과 응집력을 형성하기 · 자신을 긍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름으로 별칭을 지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기 · 자신의 장점, 강점, 좋아하는 것, 문제 해결 방법, 변화하고 싶은 것(목표)에 대해 이야기하기 · 본인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 원하는 목표점수를 실린더 그래프에 색칠하기(1-10점) · 집단규칙 정하기 · 메시지 전달	· 6주 후 변화되고 싶은 나의 모습 생각해오기
목표 설정 및 달성 단계	2	·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알고 표현하기	[감정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손인형 이용] [감정의 판도 마임] [빗방울의 춤] [신기한 문방구]	· 변화에 대한 질문 · 어떤 느낌이 있는지,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타인의 다양한 감정과 느낌을 아는 방법은 무엇인지 손인형을 이용하여 이야기하기 · 판도마임을 통해 자신의 기분과 느낌을 표현하기와 타인의 느낌을 알아맞히기 · 음악과 이야기에 맞춰 활동을 하면서 긴장과 이완의 차이를 경험하고 느낌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이완훈련하기 · 버리고 싶은 마음을 팔고, 갖고 싶은 마음을 사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자기 모습을 만들어가기 · 메시지 전달	· 오늘 산 마음을 잘 간직하면서 지내보기
	3	· 가족에 대해 이해하기	[감정카드] [동물 가족화] [거북이 이야기]	· 변화에 대한 질문(진보점수를 척도화 하기) · 감정카드를 이용하여 나의 현재 기분을 확인하고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변화시키기 · 동물그림을 통해 가족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해 봄으로써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해하기 · 거북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과 동료의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가족구조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 메시지 전달	· 주위사람이 지각하는 나의 변화 알아오기



<표 4> 계속

단계	회	목 표	활 동 명	목표 및 내용	과 제
목표 설정 및 달성 단계	4	· 가족 및 친구와 의사소통 향상	[맹인과 달팽이] [듣기·보기·말하기 나라] [연상화 그리기] [희망의 나라]	· 변화에 대한 질문 · 타인의 관점에서 지시를 하고, 지시를 따라행동해 봄으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기 · 의사소통과정에서 개인의 차이를 인식해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이해하기 · 동료가 그린 그림에 더하여 그리는 과정에서 타인의 의도를 추론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조화롭게 완성하기 · 자신의 희망(소중히 여기는 가치나 목표)을 유리병에 담아 미래에 대한 긍정적 희망 간직하기 · 메시지 전달	· 내가 대화를 잘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관찰하기
	5	· 가족상을 현실화하기 · 현실적인 소망 갖기	[청개구리 대화] [소망카드] [이룰 수 없는 소망과의 고별식]	· 변화에 대한 질문 · 다양한 방법으로 동료와 의사소통을 해본 후 바람직한 의사소통방법 익히기 · 가족에 대한 소망을 소망카드에 적은 후 소망의 실현 가능성을 알아보고, 친구들과 함께 생각나누기 · 이룰 수 없는 소원은 풍선에 써서 터뜨리고 현실적인 소망 생각해 보기 · 메시지 전달	·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 생각해오기
변화 확인 및 종결 단계	6	·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 자신과 타인의 변화에 대한 인정과 평가	[해결의 마법 의자] [칭찬모자 쓰기] [척도그래프]	· 변화에 대한 질문 · 역할놀이를 통해 친구들과 함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문제해결과정과 방법을 발견하기 · 칭찬모자를 쓴 동료에게 상담자와 구성원들이 변화한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칭찬과 격려하기 · 목표성취에 대한 점수 척도화해서 실린더그래프에 색칠하기(1-10점) · 변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나누기 · 증결식과 파티	· 잘해온 것과 변화한 것을 생각하고 계속 유지하도록 부탁 · 어려움이 생기면 연락하도록 지도

<표 5> 어머니용 프로그램

단계	회	목 표	활 동 명	목표 및 내용	과 제
집단 형성 단계	1	· 프로그램 소개 · 자기소개 · 집단치료자와 집단원간의 관계형성	[별칭 짓기] [클로버]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 집단 프로그램 소개 · 긍정적인 것, 변화되고 싶은 내용으로 별칭을 지어 긍정적인 자아상 만들기 · 강점과 장점 및 목표, 스트레스 해결법 발견하기 · 게임을 통해 집단구성원들의 집단응집력과 친밀감 형성하기 · 집단규칙 정하기 · 메시지 전달	· 6주 후 나의 모습 생각해오기
목표 설정 및 달성	2	· 목표설정 · 나에 대한 이해 증진	[생각과 느낌 나누기] [추억의 사진]	· 일상생활에서 느낀 감사와 흥분, 근심과 의문, 불평과 해결방안, 새로운 정보, 희망과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기 · 6주 후 모습 이야기하면서 목표를 확인 · 나의 성장과정을 가족의 맥락에서 보며 나와 원가족에 대해 이해하기	· 미래의 내모습이 되는데 필요한 것 생각해오기

<표 5> 계속

단계	회	목표	활동명	목표 및 내용	과제
목표 설정 및 달성 단계	2	· 나와 자녀에 대한 이해	[나의 위치]	· 현재 나의 모습과 위치를 평가하고, 미래의 긍정적인 나의 모습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계획하기 · 메시지 전달	
	3	· 감정의 적절한 표현 · 자기 패배적 믿음/왜곡된 생각 알기	[생각과 느낌 나누기]	· 일상생활에서 느낀 감사와 흥분, 근심과 의문, 불평과 해결방안, 새로운 정보, 희망과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기 · 본인과 동료의 좋아진 것, 변화한 것, 강점과 장점 발견하기	
			[감정카드]	· 감정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현재 기분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부정적 감정은 긍정적 감정으로 변화시키기	
			[자기 패배적 믿음 활동] [분노 다루기]	· 현재의 왜곡된 신념과 사고를 긍정적인 신념과 합리적 사고로 변화시키기 · 화를 다루는 방법을 연습하기 · 진보점수를 척도화하기 · 메시지 전달	
4	· 자녀와의 의사소통 향상 · 자존감 높이기	[생각과 느낌 나누기] [듣기·보기·말하기 나라] [거울보기] [자존감 바꾸니] [다른 사람 칭찬하기]	· 일상생활에서 느낀 감사와 흥분, 근심과 의문, 불평과 해결방안, 새로운 정보, 희망과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기 · 본인과 동료의 좋아진 것, 변화한 것, 강점과 장점 발견하기 ·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이해하며 의사소통과정에서 개인의 차이를 이해하기 · 타인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고 이에 맞춰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워 가족 및 동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기술을 습득하기 · 동료의 장점을 탐색하면서 나의 장점을 새롭게 발견하는 경험하기 · 동료의 강점과 강점을 칭찬하면서 긍정적인 인식을 키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갖기 · 메시지 전달	·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 만들어오기	
변화 확인 및 종결 단계	6	· 변화의 인정과 평가 · 종결	[생각과 느낌 나누기]	· 일상생활에서 느낀 감사와 흥분, 근심과 의문, 불평과 해결방안, 새로운 정보, 희망과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기 · 자신의 변화에 대한 자신, 동료, 가족, 치료자의 인정과 평가	· 잘 해온 것을 생각하고 계속 유지하도록 부탁하기 · 어려울 때 복지사에게 알리거나 선생님의 전자메일로 연락하기
			[해결의 마법 의자] [한마디 말을 그대에게]	· 동료들과 함께 효과적인 문제해결과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문제해결능력 키우기 · 동료들의 강점과 장점에 대해 인정과 칭찬의 말을 나누며 선물 교환하기 · 목표성취에 대한 척도 질문(1-10점) · 수료식	
5	· 원하는 목표달성하기 · 활용 가능한 자원 찾기	[생각과 느낌 나누기] [소망카드] [희망의 나라]	· 일상생활에서 느낀 감사와 흥분, 근심과 의문, 불평과 해결방안, 새로운 정보, 희망과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기 · 본인과 동료의 좋아진 것, 변화한 것, 강점과 장점 발견하기 · 성취 가능한 소망과 버려할 소망을 구분하여 적고 동료들과 생각 나누기 · 자신이 소중한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을 유리병에 담아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 간직하기 · 메시지 전달	· 자신과 주위의 자원발굴, 확인, 활용해보기 · 1000원 상당의 선물 준비	

#### 4. 측정도구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들을 아동용과 어머니용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아동용

###### (1) 아동용 삶의 질 척도

아동용 삶의 질(Adolescent Wellbeing) 척도는 Birleson(1980)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서 아동이 자신의 생활과 스스로를 얼마나 활기차게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도구이며 본 연구자들이 번안하였다. 이 도구는 7-8세부터 사용가능하고 18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 )가 낮은 4개의 문항을 제외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대체로 그렇다(0점)'에서 '전혀 아니다(2점)' 중 한 개를 체크하는 3점척도 도구로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28점까지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행복감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61~.82이었다.

###### (2) 이혼에 대한 태도 척도

부모의 이혼에 대한 아동의 태도 검사는 Pedro-Carroll(1984), Smilansky(1992)가 사용한 도구를 오순(2001)이 번안한 15문항 중 내적 합치도가 낮은 5개의 문항을 제외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중 한 개를 체크하는 4점척도 도구로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문항의 내용은 재결합의 희망, 동료의 조롱, 자기 비난, 버려짐에 대한 불안, 부모 비난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62~.63이었다.

###### (3)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검사를 어주경(1998)이 번안한 것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정말 아니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4점)'의 4점척도 도구로 점수의 범

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66~.79이었다.

###### (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는 Barnes와 Olson(1982)의 척도를 전연진·정문자(2002)가 번안한 것으로,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과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이 각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척도 도구로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74~.92이었다.

##### 2) 어머니용

###### (1) 성인용 삶의 질 척도

성인용 삶의 질(Adult Wellbeing) 척도는 Snaith, Constantopoulos, Jardine과 McGuffin(1978)이 부모의 정신적 건강을 사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인데 본 연구자들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8문항으로 되어있으며 각 문항의 응답은 '자주 그렇다(0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3점)'의 4점척도 도구로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행복감을 나타낸다. 하위 영역에는 우울증(5문항), 불안증(5문항), 외현적 신경증(4문항), 내재적 신경증(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울증점수가 4-6점 이상, 불안증점수가 6-8점 이상, 외현적 신경증점수가 5-7점 이상, 내재적 신경증점수가 4-6점이상이 되면 임상적 범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외현적 신경증은 자녀에게 분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내재적 신경증은 자기 상해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67~.87이었다.

###### (2) 이혼에 대한 부모의 태도

이혼에 대한 부모의 태도 조사(Parent Attitude Survey)는 Frieman, Garon과 Mandell(1994)이 개발한 것으로 이혼이 부모자신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처능력에 대한 이해정도를 측정하는 25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본 연구자들이 번안하였다. 이 25문항 중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거나 내용이 중복된 문항들을 제외한 15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척도 도구로 척도의 점수 범위는 14점에서 7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89~.95이었다.

### (3)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검사를 어주경(1998)이 번안한 것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63~.76이었다.

### (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는 Barnes와 Olson(1982)의 척도를 전연진·정문자(2002)가 번안한 것으로, 총 20문항 중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모두 .96이었다.

##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집단치료'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삶의 질', '이혼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그리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 집단치료의 효과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동은 사전과 사후검사 점수를 가지고 *t*-test를 하였고 수가 적은 어머니에게는 비모수 통계방법인 맨 위트니 유검사로(Mann-Whitney U Test) 검증하였다. 실험집단 아동에게 프로그램의 효과가 일정기간 유지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와 추후검사 점수에 대해 paired *t*-test를 하였으며 어머니의 경우 비모수 통계방법인 윌콕슨의 결합-조 기호-순위 검증(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양적인 분석방법으로는 간과되기 쉬운 참여자들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참여자와의 심층면접, 주 양육자와의 전화면접, 집단 치료자 및 보조 치료자의 평가, 그리고 복지관 관련자의 보고를 사용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삶의 질, 이혼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변인들을 검사의 시기별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프로그램이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

1) 연구문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혼 가정의 사회적응을 위한 통합적 집단치료에 참여한 아동집단과 비참여 아동집단은 삶의 질, 이혼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가지고 *t*-test를 하였다.

먼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아동의 사전검사 점수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삶의 질,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그리고 이혼에 대한 태도 척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표 6> 아동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점수의 비교 (N=41)

변인 <sup>1)</sup>	실험집단(n=18)	통제집단(n=23)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삶의 질	13.61(4.64)	12.87(4.03)	0.55
이혼에 대한 태도	18.00(4.92)	18.75(4.45)	0.39
자아존중감	29.83(4.19)	25.30(3.81)	3.6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35.94(5.82)	33.17(7.24)	1.32

\*\*\**p*<.001

1) 삶의 질은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행복감을 나타내는 반면 이혼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임.

보이지 않았으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아동이 등질적임을 가정할 수 있다. 반면 자아존중감 척도에서 실험집단의 아동이 통제집단의 아동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었다( $p<.001$ ).

6회에 걸친 집단치료 후 실시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아동의 사후검사 점수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아동은 삶의 질( $p<.001$ )과 자아존중감( $p<.001$ )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의 차이를 보여 본 집단치료가 실험집단 아동의 삶의 질과 자아존중감이 통제집단 아동의 것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 척도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아동의 등질성을 가정할 수 없으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아동의 사후검사 점수에서 사전검사 점수를 뺀 점수를 가지고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35, p=.18$ ). 그러므

로 본 집단치료는 이혼가정 아동의 삶의 질에서만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아동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내에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가지고 paired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아동의 두 집단내에서 모두 삶의 질과 이혼에 대한 태도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두 아동집단의 삶의 질과 이혼에 대한 태도 점수를 살펴보면, 사전 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삶의 질의 평균 점수는 더 높고(13.61 대 12.87) 이혼에 대한 태도의 평균 점수는 더 낮았으나(18.00 대 18.75) 사후 검사에서는 삶의 질의 평균 점수는 더 낮고(6.33 대 9.52) 이혼에 대한 태도 평균 점수는 더 높았다(33.33 대 31.94). 이는 프로그램을 마친 후 실험집단 아동이 통제집단 아동보다 삶의 질과 이혼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자아존중감에서 통제집단 아동은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의 평균 점수가 낮았으나(25.30 → 24.65), 실험집단 아동은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 평균 점수가 높았다(29.83 → 31.22). 이는 프로그램을 마친 후 실험집단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통제집단 아동에 비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2) 연구문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집단치료에 참여한 아동에게 프로그램 종료 후 3개월이 지

<표 7> 아동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의 비교 (N=41)

변 인	실험집단(n=18)	통제집단(n=23)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삶의 질	6.33(3.30)	9.52(3.01)	-3.22***
이혼에 대한 태도	33.22(3.07)	31.94(4.80)	0.69
자아존중감	31.22(4.63)	24.65(4.06)	4.8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35.56(6.03)	33.35(5.41)	1.23

\*\*\* $p<.001$

<표 8> 아동의 집단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비교

(N=41)

집단구분	변 인	사전 검사	사후 검사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실험집단 (n=18)	삶의 질	13.61( 4.64)	6.33(3.30)	4.96**
	이혼에 대한 태도	18.00( 4.92)	33.33(3.07)	-6.25**
	자아존중감	29.83( 4.19)	31.22(4.63)	-1.5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35.94( 5.82)	35.56(6.03)	0.30
통제집단 (n=23)	삶의 질	12.87( 4.03)	9.52(3.01)	3.46*
	이혼에 대한 태도	18.75( 4.45)	31.94(4.80)	-6.58**
	자아존중감	25.30( 3.80)	24.65(4.10)	0.5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33.17(7.225)	33.35(5.41)	-0.12

\* $p<.05$  \*\* $p<.001$

난 후에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검사와 추후검사 점수를 가지고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 아동의 사후 검사와 추후 검사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실험집단 아동의 사후 검사 점수와 추후 검사 점수의 비교 (N=18)

변 인	사후 검사	추후 검사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삶의 질	6.33(3.30)	7.56(5.06)	-0.80
이혼에 대한태도	33.33(3.07)	33.67(4.66)	-0.25
자아존중감	31.22(4.63)	30.22(4.58)	1.16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35.56(6.03)	35.56(6.03)	0.53

실험집단 아동의 사후 검사 점수와 프로그램을 마치고 3개월 후의 실시한 추후 검사 점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실험집단 아동에게 프로그램의 효과로 인한 변화가 3개월 후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혼에 대한 태도에서 실험집단 아동은 사후검사보다 추후검사 평균 점수가 높았다(33.33 → 33.67).

3) 실험집단 아동 18명중 어머니와 함께 참여한 아동 5명과 어머니가 함께 참여하지 않은 아동 13명 간에 삶의 질, 이혼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사후검사 및 추후검사를 가지고 맨 위트니 유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각 집단내에서 어떤 변화가

<표 10> 어머니와 함께 참여한 아동집단(A)과 어머니가 참여하지 않은 아동집단(B)의 시기별 검사점수의 비교 (N=18)

집 단 구 분	변 인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추후 검사	Z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A 집단(n=5)	삶의 질	14.20(6.18)	8.20(2.68)		-1.63
			8.20(2.68)	9.40(3.44)	-0.47
		14.20(6.18)		9.40(3.44)	-2.03*
	이혼에 대한 태도	16.00(1.41)	33.33(1.15)		-1.34
			33.33(1.15)	32.00(2.74)	-0.45
		16.00(1.41)		32.00(2.74)	-1.34
	자아존중감	27.40(3.85)	28.80(4.54)		-0.74
			28.80(4.54)	27.60(3.50)	-1.41
		27.40(3.85)		27.60(3.50)	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36.60(6.95)	37.80(7.36)		-1.07
			37.80(7.36)	32.80(10.47)	-1.75
		36.60(6.95)		32.80(10.47)	-1.22
B 집단(n=13)	삶의 질	13.38(4.19)	5.62(3.33)		-2.97**
			5.62(3.33)	6.85(5.51)	-0.25
		13.38(4.19)		6.85(5.51)	-3.12**
	이혼에 대한 태도	18.57(5.50)	33.00(3.51)		-2.37*
			33.00(3.51)	34.31(4.03)	-0.14
		18.57(5.50)		34.31(4.03)	-2.20*
	자아존중감	30.77(4.07)	32.15(4.49)		-1.17
			32.15(4.49)	31.23(4.66)	-0.49
		30.77(4.07)		31.23(4.66)	-0.2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35.69(5.12)	34.69(5.53)		-0.27
			34.69(5.53)	35.23(9.48)	-0.25
		35.69(5.12)		35.23(9.48)	-0.83

\*p<.05 \*\*p<.01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사후검사 및 추후검사를 가지고 윌콕슨의 결합-조 기호-순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와 같이 어머니와 함께 참여한 아동 집단은 삶의 질( $p<.05$ )에서, 어머니가 참여하지 않은 아동집단은 삶의 질( $p<.01$ )과, 이혼에 대한 태도(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어머니가 참여한 아동집단은 프로그램 종결 후 3개월 뒤에 삶의 질에서, 어머니가 참여하지 않은 아동집단은 프로그램 종결 직후와 3개월 뒤에 삶의 질과 이혼에 대한 태도에서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참여한 아동집단도 이혼에 대한 태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즉, 이 아동집단은 사전검사 시보다 사후검사 시에 이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참여한 아동집단은 사전 검사 시 평균 36.60점에서 사후검사 시 평균 37.80점으로 증가했지만 어머니가 참여하지 않은 아동집단은 사전 검사 시 평균 35.69점에서 사후 검사 시 평균 34.69점으로 감소하였다. 즉, 어머니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2. 프로그램이 어머니에게 미치는 효과

1) 연구문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혼 가정의 사회적응을 위한 통합적 집단치료에 참여한 어머니와 비참여 어머니는 삶의 질, 이혼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가지고 맨 위트니 유 검증을 하였다.

먼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어머니의 사전검사 점수의 차이 검증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삶의 질, 이혼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아존중감 척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실험집단의 어머니와 통제 집단의 어머니가

등질적임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05$ )를 보여 실험집단의 어머니가 통제집단의 어머니보다 의사소통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집단치료가 종결된 후에 실시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어머니의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 검증을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어머니는 삶의 질의 모든 하위영역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본 집단치료는 이혼한 어머니의 우울증, 불안증, 외현적 신경증, 내재적 신경증을 모두 감소시켜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에서는 <표 11>에서처럼 실험집단과 통제

<표 11> 어머니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점수의 비교 (N=14)

변 인	실험집단(n=6)	통제집단(n=8)	Z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삶의 질	우울증	5.67(2.73)	8.38( 2.39)	-1.75
	불안증	5.67(3.14)	7.38( 1.69)	-1.17
	외현적 신경증	3.17(2.79)	6.13( 1.64)	-1.90
	내재적 신경증	3.33(2.66)	5.63( 1.20)	-1.71
이혼에 대한 태도	52.83(2.23)	53.50(13.16)	-0.52	
자아존중감	27.00(3.74)	24.50( 2.20)	-1.2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39.83(8.61)	27.86( 9.06)	-2.08*	

\* $p<.05$

<표 12> 어머니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의 비교 (N=14)

변 인	실험집단(n=6)	통제집단(n=8)	Z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삶의 질	우울증	4.67(1.37)	8.25( 1.75)	-2.89**
	불안증	5.67(1.97)	7.75( 0.71)	-2.55*
	외현적 신경증	3.33(1.63)	6.50( 1.20)	-2.88**
	내재적 신경증	2.83(2.23)	6.50( 1.07)	-2.73**
이혼에 대한 태도	57.67(6.86)	52.00(11.93)	-0.84	
자아존중감	28.00(3.79)	25.25( 1.28)	-1.3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40.67(8.85)	25.25( 4.23)	-2.65**	

\* $p<.05$  \*\* $p<.01$

집단 어머니 간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어머니의 사후검사 점수에서 사전검사 점수를 뺀 점수를 가지고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어머니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내에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가지고 윌콕슨의 결합-조 기호-순위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표 13>과 같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이혼에 대한 태도에서 통제집단 어머니는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의 평균 점수가 낮았으나(53.50 → 52.00), 실험집단 어머니는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 평균 점수가 높았다(52.83 → 57.67). 유사하게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서도 통제집단 어머니는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의 평균 점수가 낮았으나(27.86 → 25.25), 실험집단 어머니는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 평균 점수가 높았다(39.83 → 40.67). 이는 프로그램을 마친 후 실험집단 어머니가 통제집단 어머니보다 이혼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더 개방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 연구문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 어

머니에게 프로그램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사후검사와 추후검사 점수를 가지고 윌콕슨의 결합-조 기호-순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 어머니의 사후 검사와 추후 검사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실험집단 어머니의 사후검사 점수와 집단치료를 마치고 3개월 후에 실시한 추후 검사 점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실험집단 어머니에게 프로그램의 효과로 인한 변화가 3개월 후까지 유지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실험집단 어머니의 우울증 점수는 평균 4.67점에서 평균 4.33점으로, 외현적 신경증 점수는 평균 3.33점에서 평균 3.00점으로, 내재적 신경증 점수는 평균 2.83점에서 평균 2.00점으로 감소하여 삶의 질이 더욱 높아졌고 자아존중감 점수는 평균 28.00점에서 평균 31.17점으로 높아졌다. 즉, 사후검사에서 보여준 어머니의 삶의 질과 자아존중감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는 프로그램을 마치고 난 3개월 후에도 계속 유지 또는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13> 어머니집단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비교

(N=14)

집 단 구 분	변 인		사전 검사	사후 검사	Z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실험집단(n=6)	삶의 질	우울증	5.67( 2.73)	4.67( 1.37)	-1.10
		불안증	5.67( 3.14)	5.67( 1.97)	-0.11
		외현적 신경증	3.17( 2.79)	3.33( 1.63)	-0.43
		내재적 신경증	3.33( 2.66)	2.83( 2.23)	-1.09
	이혼에 대한 태도		52.83( 2.22)	57.67( 6.86)	-1.63
	자아존중감		27.00( 3.74)	28.00( 3.79)	-1.7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39.83( 8.61)	40.67( 8.85)	-0.41
통제집단(n=8)	삶의 질	우울증	8.38( 2.39)	8.25( 1.75)	-0.09
		불안증	7.38( 1.68)	7.75( 0.71)	-0.71
		외현적 신경증	6.13( 1.64)	6.50( 1.20)	-0.11
		내재적 신경증	5.63( 1.20)	6.50( 1.07)	-1.51
	이혼에 대한 태도		53.50(13.16)	52.00(11.93)	-0.51
	자아존중감		24.50( 2.20)	25.25( 1.28)	-1.3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27.86( 9.06)	25.25( 4.23)	-0.41



〈표 14〉 실험집단 어머니의 사후 검사 점수와 추후 검사 점수의 비교 (N=6)

변 인		사후 검사	추후 검사	Z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삶의 질	우울증	4.67(1.37)	4.33( 0.82)	-0.58
	불안증	5.67(1.97)	5.67( 3.01)	0
	외현적 신경증	3.33(1.63)	3.00( 2.10)	-0.41
	내재적 신경증	2.83(2.23)	2.00( 1.90)	-1.63
이혼에 대한 태도		57.67(6.86)	57.00(12.46)	-0.27
자아존중감		28.00(3.79)	31.17( 4.00)	-1.3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40.67(8.85)	38.17(10.01)	-1.29

3. 참여자의 자기 변화에 대한 평가

1) 척도질문을 통한 참여자의 자기평가

양적 분석방법에서와 같이 삶의 질, 이혼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해결중심치료에서 주로 사용하는 10점 척도질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영역에서 상태가 가장 좋지 않을 때를 1점으로 하고 가장 좋은 상태를 10점으로 하여 사전, 사후, 추후조사를 통해 파악한 것이 〈표 15〉와 〈표 16〉에 제시되어 있다.

〈표 15〉에서처럼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를 비교할 때 실험집단의 아동들의 삶의 질, 이혼에 대

한 태도,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프로그램 실시 후 급상승하였고, 이 긍정적인 변화는 프로그램 종결 3개월 후 삶의 질, 이혼에 대한 태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서 소폭 향상을 보였고 자아존중감에서는 소폭 하락하였다. 이는 사소한 차이이지만 사후의 긍정적인 변화가 3개월 후에도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6〉에 의하면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를 비교할 때 실험집단 어머니들의 삶의 질, 이혼에 대한 태도와 자아존중감은 프로그램을 실시 후 급상승하였고, 이 긍정적인 변화는 프로그램 종결 3개월 후 이혼에 대한 태도에서는 소폭 향상을 보였고 삶의 질, 자아존중감에서는 유지가 되었으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서 소폭 하락하였다. 이를 통해 사후의 긍정적인 변화가 3개월 후에도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과 어머니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리면 〈그림 1〉과 같다.

2) 심층 면접을 통한 참여자의 자기평가

(1) 아동집단

프로그램 실시 후 참여 아동들을 집단 치료자가 개별적으로 면접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알아본 것을 요약하면 〈표 17〉과 같다.

〈표 15〉 측정변인에 대한 아동의 시기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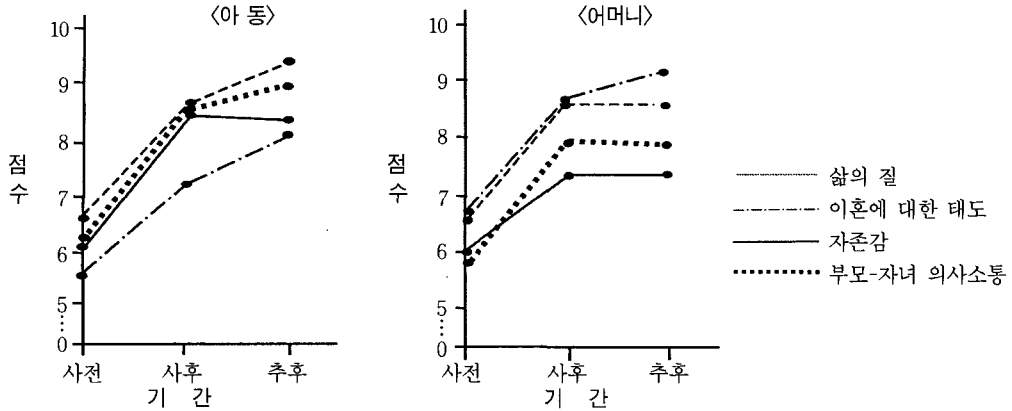
(N=18)

시 기	삶의 질		이혼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프로그램 실시 전	6.61	3.29	5.71	3.18	6.14	2.72	6.19	3.48
프로그램 실시 후	8.72	1.64	7.18	2.46	8.53	1.77	8.36	2.46
3개월 후	9.33	0.97	7.94	2.41	8.42	1.82	8.75	2.31

〈표 16〉 측정변인에 대한 어머니의 시기별 변화

(N=6)

시 기	삶의 질		이혼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프로그램 실시 전	6.58	2.15	6.75	1.67	6.00	1.51	5.91	1.77
프로그램 실시 후	8.50	1.00	8.58	0.66	7.50	1.55	7.92	1.07
3개월 후	8.50	1.00	9.08	0.92	7.50	1.26	7.83	1.44



〈그림 1〉 측정변인에 대한 아동 및 어머니의 시기별 변화

〈표 17〉 측정변인으로 살펴본 참여 아동의 반응

변인	내용	별칭	성, 학년
삶의 질	생활이 즐거워졌어요. 감정 표현을 더 잘 하게 되었어요. 나쁜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바꾸는 것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참을성이 좀 부족했는데 참을성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우는 것도 조금씩 없어졌어요. 엄마가 달라진 것은 좀 더 웃어요. 저도 많이 웃어요.	가 재	남, 3
		송다운	여, 2
		토깡이	여, 4
		강아지	여, 5
이혼에 대한 태도	부모님이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을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요. 감정이 시원해졌어요. 이혼에 대해 숨기면 더 힘든데 말하고 나니까 도움이 되었어요. 이제는 친구들이 알아도 아무렇지 않아요. 아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엄마가 슬퍼하니깐요. 친구들에게 아빠랑 같이 살지 않는다고 얘기 하지 못해요. 친구들이 만일 알면 흉볼 것 같아요. 아빠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탄소리를 하세요.	손까지 솔방울	여, 5 여, 4
		비행기	남, 3
		별 님	여, 4
자아 존중감	자신감이 더 많이 생겨서 예전보다 발표양이 더 많아졌어요.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성적이 올라갔고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친구들이 말하는 것도 좋게 넘기구요.	들국화	여, 6
		비행기	남, 3
		흑돼지	남, 6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엄마도 여기 참석해서 엄마랑 우리랑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마하고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요. 말투도 좀 달라졌구요. 화내는 횟수도 반으로 줄어 들었어요.	들국화 강아지	여, 6 여, 5

〈표 17〉에서와 같이 아동들의 이러한 변화는 프로그램에서 치료사 및 집단원과의 지지적인 관계를 통해 아동이 자신과 현실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됨으로써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학업이나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에 대해 해결되지 못한 정서적인 문제를 때문에 자녀에게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거나, 아동은 양육부모의

눈치를 보거나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양육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2) 어머니집단

프로그램 실시 후 참여 어머니들을 집단 치료사가 개별적으로 면접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알아본 것을 요약하면 〈표 18〉과 같다.

〈표 18〉에서처럼 어머니집단에서는 같은 집단 구성원들에게서 느끼는 사회적 지지감이 큰 힘이 되

〈표 18〉 측정변인으로 살펴본 참여 어머니의 반응

변 인	내 용	별 칭
삶의 질	여기 와서 이야기 하니까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아 좋아요. 예전에는 분노조절을 못했는데 이제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카시아 수 선 화
이혼에 대한 태도	전에는 남이 알까봐 감추고 그랬는데 감춤없이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수
자아존중감	나도 쓸모가 있구나 생각해요. 어디 내놔도 내 딸과 나는 당당하다. 딸 하나는 잘 키웠구나. 과거는 실패했지만 앞으로는 실패는 없다. 장래가 중요하니까 과거는 돌아 보지 말고 앞만 보고가자. 내가 살아온 것은 떳떳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카시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지금까지는 살다보니가 여유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는 화나는 일 있으면 아이와 얘기를 해요.	수 선 화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분노나 신경질 등 감정조절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 떳떳해졌으며 이혼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신뢰로운 분위기를 통해 참여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의 어려움과 경험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었고 상호지적인 관계에서 많은 격려를 받았으며, 삶의 어떤 면에서 실패자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효능감을 촉진시켜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참여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기 감정을 더 잘 조절하게 되고 대화를 더 많이 하도록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 4. 참여자 변화에 대한 타인의 평가

##### 1) 아동의 변화에 대한 주양육자의 평가

프로그램 종료 후로부터 1주일 사이에 참여 아동의 가정으로 전화를 하여 아동의 상황과 변화여부에 대한 주양육자의 견해를 인터뷰한 결과가 〈표 19〉에 제시되어있다.

〈표 19〉에서처럼 프로그램 참여 후 아동들은 활발해지고 밝아졌으며 자신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늘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양육자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고 자녀들이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생계를 위해 일

하다보니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어 자녀에 대해 모르는 가정들도 있었다.

##### 2) 참여자의 변화에 대한 치료자의 평가

프로그램 종료 후 각 집단의 치료자와 보조치료자들이 집단원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 것이 〈표 20〉과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표 20〉에서는 참여 아동들이 이혼이나 부정적인 경험을 솔직하게 개방하면서 감정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고 자신감이 생겼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자기통제력이 생기는 등 다양한 변화의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많은 아동들이 집단활동을 즐거워하면서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표 21〉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나타난 어머니의 변화로는 자신감이 생긴 것 외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통찰하게 되었고 이혼의 상처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어졌으며, 활기가 차고 적극적이 되었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 3) 참여자들의 변화에 대한 복지관 관련자의 보고

Y복지관에서는 부모나 자녀가 이혼을 숨기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사회복지관은 지역적으로 묶여있어서 비밀유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혼 가정의 모자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되어왔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머니나 아동이 첫 회기 참여 후 모두 좋은 반응을 보였다

〈표 19〉 참여 아동의 변화에 대한 주양육자의 의견 및 척도점수

(N=18)

별 칭	응답자	프로그램 후 달라진 점	만족점수 (10점 만점)
가 재	조모	어른스러워졌다. 동생하고 잘 지낸다.	7점
송다은	조모	활발하고 말을 많이 하고 어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한다.	8-9점
라이언	부	밝아 보이고 성격이 올라갔다.	7-8점
마 이	모	이전에도 모든 것이 좋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 잘 모르겠다.	9점
마법사	부	일 때문에 아이와 만날 시간이 거의 없어 모르겠다.	10점
솔방울	조모	밝고 책임감이 있어졌다.	8점
별 님	조모	밝아지고 할머니 말을 잘 더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	10점
전 사	조모	밝고 밝으며 활발해졌다.	8점
초롱이	모	시간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엄마가 말할 때 조금 수긍하는 것 같다.	7점
비행기	모	관찰할 시간이 거의 없지만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늘어난 것 같다.	9점
토끼이	부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명랑하고 밝다.	8점
러브짱	모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스스로 갔고 자신의 일을 잘 챙긴다.	7점
흑돼지	부	이전보다 활발해졌다.	8점
들국화	모	이해력이 증가한 것 같다. 오빠와 다투고 난 뒤 야단치면 대들지 않는다.	7-8점
손깍지	고모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의사표현을 잘하지 못했는데 하려고 한다.	7점
나 무	모	엄마를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애쓴다.	9.5점
토끼딸	모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밝아졌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한다.	8점
강아지	모	많이 안정되고 표현력이 늘고 우는 횟수가 줄었다. 공부에 신경을 쓴다.	6점

〈표 20〉 참여 아동의 변화에 대한 치료자의 평가

(N=18)

별 칭	변 화 내 용
가 재	과격한 행동을 하는 대신 말로 표현하였고 어느정도 자기통제를 하였다.
송다은	소극적이었으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였다.
라이언	이혼, 어머니의 부재 등 가족 얘기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었다.
마 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어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개방할 수 있게 되었다.
마법사	감정 통제의 어려움이 보였으나 4회부터 눈에 띠게 밝아졌으며, 웃는 모습이 늘어났다.
솔방울	다른 친구들과 리더의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자존감과 자신감이 늘어났다.
별 님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많이 발견하였으며 자신감이 생겼다.
전 사	주의가 산만하였으나 활동에 집중하고 참여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초롱이	산만하고 과장되어 보였으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집중력이 점차 향상되었다.
비행기	소극적이면서도 산만하였으나 발표를 잘하게 되었고 자신감이 생겼다.
토끼이	수줍어하였으나 활기를 띄고 적극성을 보이게 되었고 프로그램 진행 중 기분이 좋아보였다.
러브짱	잡담과 끼어들기를 하였으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늘어났다.
흑돼지	주의가 산만하였으나 산만한 행동과 과잉행동이 줄어들었으며 주의집중능력이 향상되었다.
들국화	숨김없이 솔직하게 발표를 하고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의견점을 꺼내었다.
손깍지	감정변화가 많고 남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했는데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나 무	수줍음을 많이 보였으나 자신의 소극적인 면을 변화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토끼딸	어떤 활동이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남의 얘기를 잘 듣고자 노력하였다.
강아지	말하는데 일관성이 생겼고 자신있게 발표하였다.

〈표 21〉 참여 어머니의 변화에 대한 치료자의 평가

(N=6)

별 칭	변 화 내 용
수	무기력해 보였으나 의사표시나 행동에서 적극성을 보이고 표현도 많이 하게 되었다.
공 주	부모에게 덜 의존하게 되고 자녀양육에 관해 자신감을 좀 더 가지게 되었다.
이 뽀 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개방하게 되어 7~8년 만에 처음으로 친척들 모임에 참석하였고 자신을 떳떳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토 끼	아이들에게 화를 덜 내게 되었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되었다.
아카시아	진정으로 이혼의 아픔에서 회복되는 것 같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잘 경청하게 되었다.
수 선 화	우울하였으나 자신감이 생기고 활기를 가지게 되었고 자녀와의 대화에도 주도적이 되었다.

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여전히 자신의 문제가 집단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꺼려하는 듯 보여졌고, 생계유지를 위해 결석할 수밖에 없어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 같다고 하였다.

S복지관의 복지담당 과정에 의하면 참여 아동들이 프로그램 시작 한 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는 등 열성을 보였고, 이러한 열성이 어머니들에게도 전해져 어머니의 출석률이 높았으며 어머니들은 프로그램 참석이 즐거우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이혼문제에 대한 개입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후에 어머니들이 자생적인 모임(등산모임)을 갖는다는 말에 놀랐으며, 자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다는 그 자체가 큰 변화로 보여지며, 어머니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자기 문제를 극복하려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말하였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이혼 가정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하여 가족이 생존과 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관점에 기초하여 통합적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 이혼가정의 아동과 어머니의 삶의 질, 이혼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변인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있어, 참여 아동에 대해 먼저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본 통합적 집단치료는 이혼가정 아동의 삶의 질을 유의하게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아동의 삶의 질에서 긍정적인 변화는 양적 분석 결과의 아동과의 심층면접, 집단 치료자, 주양육자, 및 복지관 관련자 등의 보고에 의하면, 집단치료의 참여 후 아동들이 더 밝아지고 활발해지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기 일을 더 잘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참을성이 많아졌다. 이는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재미있는 게임이나 활동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장점 및 자원을 발굴하고, 인정하며, 격려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내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삶의 질과 이혼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정 개입의 유무에 관계 없이 아동이 발달적으로 적응해나감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사전 검사를 실시한 3월보다 사후 검사를 실시한 5월에 학교생활에 점차적으로 적응해가며 봄이라는 계절의 변화가 삶의 질과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집단 아동은 통제집단 아동보다 사전검사 시 삶의 질이 더 낮았고 이혼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사후검사 시 삶의 질이 더 높았고 이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자아존중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집단치료를 실시한 후 실험집단 아동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향상된 반면 통제집단 아동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낮아졌다.

이혼 가족은 이혼 후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가족의 해체 전에 이미 시작된 갈등과 어려움으로 인해 역기능적 가족과정과 결혼갈등 및 아동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Morrison & Cherlin, 1995) 이혼 과정에서 형성된 아동의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단기 일내에 향상되는 것을 기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참여자와의 심층면접과 주양육자 및 집단 치료자의 평가에서 아동의 주요한 변화로 자신감을 가장 많이 언급한 사실은 의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신감을 회복한 아동들은 자아존중감도 향상되어 자신의 문제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됨으로써 부모의 이혼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을 수도 있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에서 양적분석에서는 실험집단 아동이 사후검사 시에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부모가 자녀에게 비양육 부모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 사실과 아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아동이 심층면접에서 보고한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의사소통이란 쌍방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교류인데 이혼가정에서 부모와 아동은 서로 눈치를 살핌으로써 개방적 의사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실험집단내에서 어머니와 함께 참여한 아동 집단과 어머니가 참여하지 않은 아동집단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각 집단내의 변화를 살펴보면 어머니와 함께 참여한 아동집단은 삶의 질 척도에서, 어머니가 참여하지 않은 아동집단은 삶의 질과 이혼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서 어머니가 참여하지 않은 아동집단은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평균점수가 감소한 반면 어머니와 함께 참여한 아동집단은 평균점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과 함께 참여한 어머니집단에서도 나타났는데 이혼 가정의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집단치료에 참여하였을 때 의사소통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집단치료에 참여한 아동에게 프로그램의 효과

로 인한 변화가 3개월 후까지 유의하게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집단치료를 마친 후 실험집단 아동은 이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고 3개월 후의 추후검사 점수는 사후 검사 점수때 보다 더 높았다.

다음으로 참여 어머니에 대한 결과를 논의해 보면, 양적, 질적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본 통합적 집단 치료는 이혼한 어머니의 우울증, 불안증, 외현적 신경증, 내재적 신경증을 감소시켜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수치와 체면을 중요시하는 우리문화에서 이혼과 관련된 감정을 표현하게 하며 자존감을 강조한 사티어의 가족치료와 가족이 가진 장점과 자원을 탐색하여 성취감과 유능감을 경험하게 하는 해결중심적 치료의 효과가 이혼한 어머니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결과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반면에 이혼에 대한 태도에서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집단치료를 종결한 시점에서 통제집단 어머니의 이혼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실험집단 어머니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참여 어머니들이 다른 참여자에게서 얻는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고 보고한 것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이러한 동료와 치료자의 진실한 이해와 지지가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있으며 자신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변화를 시켜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친밀하고 지지적인 관계가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에서 완충적 역할을 하며 새롭게 형성한 친밀한 관계가 이혼당사자에게 가장 긍정적인 전환점이라는 Hetherington과 Kelly(2002)의 주장을 지지해 준다.

또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에서도 통제집단 어머니의 점수는 집단치료 실시 후 낮아진 반면 실험집단 어머니의 점수는 향상되었다. 이 결과는 심층면접의 보고내용에서도 재현되었는데 부모들은 자녀와의 대화도 많아졌고 이혼과 관련된 내용도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

으로 촉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에게 나타난 프로그램의 효과가 프로그램 종결 후 3개월 후에도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특히 어머니의 삶의 질과 자아존중감은 프로그램 직후 실시한 사후검사보다 3개월 후 추후검사 때 더 향상되어 이혼한 어머니의 장기적인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통합적 집단치료의 효과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난 영역은 이혼 가정의 아동과 어머니 모두의 삶의 질이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있었고 질적인 분석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지지하고 있어 본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이혼가정 아동과 어머니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집단치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가 갖는 학문적·임상적 의의는 한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치료 접근과 치료적 활동들에 기초하여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집단치료 모델을 처음으로 개발, 실시하고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본 집단치료는 참여 아동과 어머니뿐 아니라 가족전반에 걸쳐 자아존중감을 증대시켜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 성공적 대처를 가능할 수 있는 수직적 파급효과뿐 아니라 개인의 변화가 관계적 맥락에서 친구, 친척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수평적인 파급효과 또한 가져오리라 본다. 이러한 변화는 질적인 분석에서 잘 나타나는데 아동의 경우 친구관계에서 이해심이 많아지고 표현력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고 어머니의 경우 친정부모에게 덜 의지하게 되고 이혼모들의 자생적인 모임을 가지게 되고 친척모임에도 참석하는 등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면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이 급증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혼가족 대상자를 모집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예정했던 것보다 적은 수의 어머니와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고 집단 배정

을 무작위로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무리가 있다. 또한 실험집단 아동과 통제집단 아동의 성비의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와의 추후면접에서 집단 치료자가 면접을 함으로써 참여자의 반응이 호의적으로 나올 수도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한 영역에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보면, 참여 어머니의 이혼에 대한 의견만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참여자 모두(아동 포함)가 갖고 있는 이혼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서 이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우려하는 참여 어머니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거북이 이야기'나 '동물 가족화'와 같은 은유적인 활동이나 게임을 통해서 이혼에 대한 아동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으나, 참여 아동의 욕구는 좀 더 분명한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의 이혼이 이해되었으면 하는 점이 표현되었으므로 차후 유사 프로그램에서는 아동의 의견도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의사소통이나 자아존중감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질적 분석으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추후연구에서는 2-4회기 정도 프로그램을 연장,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지, 확장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이혼 가족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 만연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이에 대한 영향이 이혼 당사자들에게도 위축감을 주고 이혼 노출로 인한 어머니 자신과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는 것을 재 체험할 수 있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통념이 단기간에 바뀌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혼 가족에 대한 개입 모델과 효과성 평가 연구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협조 아래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협조방안들이 강구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김득성(2002). 이혼적응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단기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리학회*, 20(2), 1-8.
- 김유숙(2004). 사회구성주의 시각과 해결중심가족치료. *한국가족치료학회 제18회 춘계학술대회*.
- 문현숙, 김득성(2003). 이혼적응 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효과검증: 집단 마라톤식 과정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11), 201-214.
- 성정현(1998). 이혼여성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와 대처전략. *사회복지연구*, 11, 53-78.
- 성정현(2002). 이혼 후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족복지학*, 9, 31-53.
- 어주경(1998).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오은순(2001).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한 학교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열린교육연구*, 9(1), 19-45.
- 전연진, 정문자(2002).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8), 139-158.
- 정문자(2003).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서울: 학지사.
- 주소희(2002). 이혼가정자녀의 부모 이혼 후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성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 77-106.
- 통계청(2003). 인구통계연보.
- Acock, A. C., & Demo, D. H. (1994). *Family diversity and well-being*. Thousand Oaks, CA: Sage.
- Albrecht, S. L. (1980). Reactions and adjustment to divorce: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 of males and females. *Family Relations*, 29, 59-68.
- Amato, P. R. (1994). Life-span adjustment of children to their parents' divorce. *Future of Children*, 4, 143-164.
- Amato, P. R.,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 26-46.
- Birleson, P. (1980). The validity of Depressive Disorder in Childhood and the Developnet of a Self-Rating Scale; a Research Repor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2, 73-88.
- Bohannan, P. (1970). The six station of divorce. In P. Bohannan(Ed.), *Divorce and after*. New York: Doubleday.
- Burns, B., & Whiteman, T. (1998). *The fresh start: Divorce recovery workbook*. Nashville, TN: Thomas Nelson.
- Chase-Lansdale, P. L., Cherlin, A. J., & Kiernan, K. K. (1995). The long-term effects of parental divorce on the mental health of young adult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66, 1614-1634.
- Davies, L., Avison, W. R., & McAlpine, D. D. (1997). Significant life experiences and depression among single and married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294-308.
- DeJong, P., & Berg, I. K. (2004). 해결을 위한 면접. 노혜련, 허남순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Demo, D. H., & Acock, A. C. (1996). Motherhood, marriage, and remarriage: 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family relationships on mothers'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17, 388-407.
- Featherman, & R. M. Lerner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Frieman, B. B., Garon, R., & Mandell, B. (1994). Parenting Seminar for Divorcing Parents. *Social Work*, 39(5), 607-610.
- Garmezzy, N. (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Grych, J., & Fincham, F. (1992). Intervention for children of divorce: Toward greater integration of research and ac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1, 434-454.
- Hemstrom, O. (1996). Is marriage dissolution linked to differences in mortality risks for men and



-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366-378.
- Hetherington, E. M. (1989). Coping with family transitions: winners, losers, and survivors. *Child Development*, 60, 1-14.
- Hetherington, E. M. (1999). Should we stay together for the sake of the children? In E. M. Hetherington(Eds.), *Coping with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remarriage: A risk and resiliency perspective*. Chapter 5. Mahwah, NJ: Lawrence Erlbaum.
- Hetherington, E. M., & Kelly, J. (2002). Lessons learned in forty-five years of studying families. In *For better or for worse: Divorce reconsidered*. Chap 13. NY: Norton.
- Higgins, G. O. (1994). *Resilient adults: Overcoming a cruel past*. San Francisco: Jossey-Bass.
- Kelly, J. B. (1988). Long-term adjustment in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 119-140.
- Kelly, J. B. (2000). Children's adjustment in conflicted marriage and divorce: A decade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 963-973.
- Lorenz, E. O., Simons, R. L., Conger, R. D., Elder, G. H., Johnson, C., & Chao, W. (1997). Married and recently divorced mothers' stressful events and distress: Tracing change over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219-232.
- Marks, N. E. (1996). Flying solo at midlife: Gender, marital statu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917-932.
- McLanahan, S. S., & Sandefur, G. (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What hurts, What help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indey, C. (1989). *The divorced mother*. New York: McGraw-Hill.
- Riessmann, C. K. (1990). *Divorce talk: Women and men make sense of personal relationship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Ross, C. E. (1995). Reconceptualizing marital status as a continuum of social attach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129-140.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Snaitch, R. P., Constantopoulos, A. A., Jardine, M. Y., & McGuffin, P. (1978). A Clinical Scale for the Self-Assessment of irritabilit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2, 163-171.
- Stolberg, A., & Cullen, P. (1983). Preventative interventions for families of divorce: The Divorce Adjustment Project. In L. A. Kurdek (Ed.), *New directions in child development*, Vol. 19: Children and divorce. San Francisco: Jossey-Bass.
- Teachman, J. D., & Paasch, K. M. (1994). Financial impact of divorce on children and the family. *Future of Children*, 4, 63-83.
- Thomson, E., McLanahan, S. S., & Curtin, R. B. (1992). Family structure, gender, and parental socializ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368-378.
- Werner, E. E. (1993). Risk, resilience, and recovery: Perspective from the Kauai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503-515.
- Zibbell, R. (1992). A short-term, small-group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 for separated and divorced parents in conflict.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18, 189-203.

(2004년 12월 22일 접수, 2005년 4월 15일 채택)